



기획시리즈

임경빈 /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사

# 조경수목 산책 (Ⅲ) —마로니에—



▲아름다운 마로니에 독일, 슈튜트가르트  
1988. 7. 10

## 1. 머리말

제목에 칠엽수(七葉樹)로 해도 좋았을 것을 구태어 마로니에로 한것은 딴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마로니에라는 감미롭고 발성학적(發聲學的)으로 음악과 같은 울동의 맛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곳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심금(心琴)에 한결같이 동심원(同心圓)처럼 퍼져 나가

는 잔잔한 물결과 같은 높고 낮은 탄력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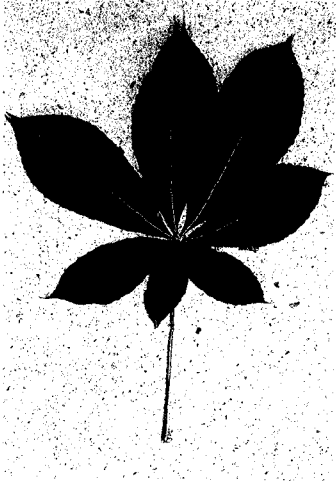
필자는 음악감상에는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고 틈이 나면 값싼 장치에 음악카세트틀 돌리고 레시버를 귀에 꽂곤 한다. 요사이 는 CD라는게 나왔다고 음질도 좋다하나 아직 그것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다.

외손자가 선물해준 쏘니의 『워

크맨』으로 만족하고 있고,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 외손자가 고맙기만 하다.

이 원고를 쓰면서도 사실은 그 장치로 “페르샤의 시장”이라는 한 없이 아름다운 음율을 듣고 있다. 계속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 페르샤의 시장의 명곡이다.

이러한 개인사정을 장황하게 늘어 놓는 것이 이곳에 어울리지



▲마로니에의 잎 독일, 슈튜트가르트 1988. 7. 10



▲마로니에, 독일프라이부르크 1988. 7. 20

않을지 모르나 왜그런지 늘어 놓고 싶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유행가(?)의 곡절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눈물속에 봄비가  
흘러내리고  
임자없는 술잔에  
어리는 그 얼굴  
루루루루 루루루루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눈물속이라던가, 임자없는 술잔이라하는 어귀는 마음에 들지 않으나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하는 지난날 만나온 한 사연이 있었던 그곳의 마로니에 꽃의 황홀을 회상하고 있는데 감동이 간다.

마로니에는 웅장한 수형과 싱싱한 잎과 밤처럼 생긴 열매의 귀여움도 있으나 역시 나무를 온통

덮어버리는 화려한 꽃때문에 돋보이고 명성도 얻은 것이 아닌가 한다.

마로니에는 칠엽수과 (Hippocastanaceae)의 칠엽수속 즉 『에스쿨루스』(Aesculus)속에 따르는 나무들인데 그안에 13에

▼우리나라에서 가장오래된 칠엽수 전북, 원주, 고산, 소향리 1991. 1. 28



이르는 수종이 있다고 한다. 모두 북반구에 자라는데 손바닥처럼 (掌狀) 갈라지는 큰잎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구별이 될 수 있다. 대개 7개의 소엽(小葉)으로 되어 있기에 흔히 칠엽수로 부르고 있다.

꽃은 초여름에 큰 원추화서(圓錐花序)로 달리고 화량(花量)이 많고 아름답다. 꽃색에는 흰것도 있고 분홍, 그리고 붉은것이 있다. 하머튼(P.G. Hammerton)은 산기를 『5월의 마로니에는 신들과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된 미술품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마로니에의 꽃을 극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열매는 둥글고 익으면 3갈래로 갈라지고 그안에 진한 갈색의 종자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굵은 밤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그냥 먹을 수는 없고 독이 있다.

식량으로 하자면 물에 우려서 써야 한다.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 일본사람들은 일본에 나는 칠엽수의 이름을 「도찌노끼」라 부르고 한자로는 「榲」 또는 「榲」자를 쓴다. 앞글자는 「상수리나무상」으로 읽고 뒤의 글자는 「상수리나무회」 또는 「도토리나무회」로 읽는다. 일본에는 곳에 따라 그들의 칠엽수가 많아 가을에 다량의 열매가 채집될 수 있어서 향토식품의 원료로 잘 이용되어 왔다. 그들은 이것으로 떡을 만드는데 이름을 「도찌모찌」라 해서 고향의 음식으로 삼고 있다. 이제는 식량에 여유가 생겨서 시골 할머니가 아니면 도찌모찌를 잘 만들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난날의 음식이 끝내 그자취를 감추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인간이 지혜로운 이상 그 전통은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인간은 맛의 고향도 잃어버리기 싫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

마로니에 열매는 정신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 내가 무척 존경하는 선배 교수 한분 있는데 그분이 이 열매로 망신(?)을 한 일이 있었다. 그분은 그 방면의 학문으로 유명한데 이곳에서는 그분의 성함을 밝히지 않기로 한다. 나무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분으로 필자를 자주 찾아 와서 나무에 열킨 이야기를 들려 주곤 했다.

그분이 유럽의 어느 대학에 초

청받아 연구를 하고 있을 무렵 그곳 대학교수택에 만찬초대를 받았다. 이때 이분 혼자만이 아니고 각국에서 온 석학교수 수명이 동시에 초대를 받았다. 이 분이 관심이 있었던 마로니에의 열매 몇알을 방에 두고 있었는데 마로니에의 영어명칭이 「알밤나무」(Ronse chestunt)란 것을 알고 서양사람들은 이런 밤을 먹는가보다 하고 그맛을 보기위해서 씹어본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기에 초대교수택으로 간 것인데 도착하자 정신을 잃게되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의 실신상태에 놓이게 되자 주변사람들의 염려로 제정신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자니 그 만찬의 참석이 순조로왔을 수 없었다. 이처럼 마로니에의 열매는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 많이 먹었더라면 큰일날 뻔했을 것이다.

마로니에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몇십년전 만하더라도 무척 휘귀한 나무였다. 필자가 유럽방면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참석하게 될때 이 소식을 알게된 당시 전라북도 임업시험장 의장장으로 있던 고 김정하씨가 나를 찾아와서 프랑스 파리에 가거든 마로니에의 열매를 구해오라고 부탁하면서 여비에 보태 쓰라고 당시돈으로 10만원을 봉투에 넣어 주었다. 여비쓰라고 하지만 마로니에 열매 수집의 댓가라는

색채가 농후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든지 이곳저곳 편하게 구경이나 하지 열매수집을 한다는 것은 보통으로는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었다.

그러나 나는 10만원이란 돈의 무게에 눌러 큼직한 배낭을 짐속에 넣어서 여행길에 올랐다. 아름다운 파리에서 구경은 커녕 공원이나 가로수로 돌아 다니면서 아마 15키로를 넘는 열매를 주어서 배낭에 넣어 호텔로 돌아 온 것이다. 그 모양은 좀은 꼴사납게 보였을 것이다.

마로니에 열매는 수집당시에는 표면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이것을 하나 하나 신문지로 닦고 또 신문지위에 널어서 밤을 지나고 했다. 다음날 이것을 질머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음지점의 호텔에 가서는 다시 종자표면을 닦고 펴서 건조시키고 했다.

날씨가 더워서 종자의 활력이 떨어질까봐 밤마다 신문지를 구해다 펴서 건조를 시킨 것이다. 무척 고생했다.

이것을 가져와서 전라북도 임업시험장에 넘겼는데 불행하게도 김정하장장이 일찍 타개했고 그런까닭도 있어서 오늘날까지 내가 가져온 파리의 마로니에의 소식은 오늘날까지 감감하다. 종자처리를 잘못해서 싹을 키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한다. 김장장이 생존해 있으면 나의 마로니에 종자 초기도입(?)의 성과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되고 말

았다.

나는 서울 대방동에 집을 짓고 뜰면적에 수십형의 여유가 있어서 정원수를 심었다. 심은 미선나무도 죽고 백송도 죽어 없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때 나는 두그루의 마로니에(정확하게는 칠엽수)를 심었다. 그 자람이 시원스럽지 못하고 잎가장자리가 여름이되면 갈색으로 변해서 죽어 들어가곤 했다.

마로니에는 음수로서 땅이 깊고 배수가 잘되면서도 항상 습기를 유지시키고 비옥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집 뜰은 시멘트 벽돌깨어진것 등 건축폐기물로 채운 땅이었기 때문에 까다로운 입지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는 칠엽수를 감당하기에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이집이 지금은 남의 손으로 넘



▲칠엽수의 잎자국 전북도 임시장 1989. 4. 8

어 갔지만 아마 그 나무는 없어진 것으로 안다. 좋다고만 무턱대고 갖다 심은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 마로니에의 종류

마로니에(marronnier)란 명칭은

프랑스어로서 밤을 뜻하는데 유럽원산의 *Aesculus hippocastanum* L.을 통상 마로니에로 부르고 있다. 영어명칭은 common horse chestnut 인데 번역한다면 『말밤나무』쯤으로 된다.

이 수종은 발칸반도(the Balkan peninsula)가 원산지로서 유일한 유럽종인 것이다. 열매표면에는 돌기가 있고 소엽(小葉)은 5~7매로 되어 있고 소엽에는 잎자루가 없다. 거대한 몸집을 가지는 아름다운 녹음수로서 가로수, 공원수 또는 정원수로서 귀중한 존재로 되어있다.

영국은 물론 유럽일대에 널리 심어졌고 그곳 사람들은 유럽일대가 마로니에의 고향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런던의 테무스강가의 마로니에, 프랑스 베르사

▼마로니에숲, 베르사이유궁전 1978. 5



이유 궁전의 마로니에숲, 파리의 상제리제거리의 마로니에 가로수 등 필자의 눈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들이다.

이 나무가 말밤나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는 몇 가지 이론(異論)이 있다. 하나는 이 열매가 말의 습찬증세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기에 말밤나무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나무의 줄기 마디있는 부분을 잘 으면 그모양이 흡사 말발모양이라는 데 있고 또 하나는 잎이 떨어지고 난 뒤의 흔적(痕迹)에 남는 유관속(維管束)의 자리가 역시 말발모양이기에 그러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 모습은 이곳의 사진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유럽산의 마로니에가 미국으로 들어간 것은 1741년이라 한다. 이 나무는 세계 각지에 식재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원예 품종이 만들어졌다.

꽃색이 흰것에 재배품종 아르바("Alba")가 있고 핑크색인 것에 로제아("Rosea")가 있으며 붉은 것에 루브리쿤다("Rubricunda")가 있다. 흰색검꽃을 다는 바우마니("Baumannii")가 있는데 종자가 형성되지 않는다. 겹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난쟁이형의 나무, 가지가 위로 서는 것, 잎색깔의 변이등 각종의 품종이 알려지고 있다.

마로니에는 대체로 자람이 매

우 빠르다. 앞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파리의 상제리제의 거리는 폭이 300m에 이르고 좌우에 3열식 모두 6열의 가로수가 서 있는데 안쪽의 한줄은 플라타너스이고 나머지 두줄식은 마로니에이다.

이들 나무가 꽃을 달때에는 상제리제의 거리는 황홀한 꿈의 거리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보다 더 장관을 이루는 마로니에의 행렬은 없다고 해도 좋다.

필자는 프랑스의 베르사이유궁전의 정원을 살필 때 마로니에의 숲이 만들어 내는 일종의 매스게임(단체체조)에 경악하고 말았던 일이 있다. 프랑스의 정원양식이 원래 기하학적 도식형이란 말은 들은적이 있지만은 마로니에의 노거수가 형태적으로 행동을 통일시키고 있는데에는 놀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줄로 서있는 마로니에가 줄기의 굵기에 있어서나 지하고의 길이에 있어서나 아랫가지의 굵기와 그 뻗어나간 각도의 통일성등 사람으로서도 해내기 어려운 그들의 매스게임을 보고 도대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하고 놀랐다. 이쯤되면 다듬어진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 들게 된다. 나와 같은 외국인에게 던져주는 프랑스의 마로니에 숲의 예술은 그 무언가 가슴두근거리게 하는 과학의 역학(力學)을 던져주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흔히 심어지고 있

는 것에 칠엽수가 있다. 이것은 일본원산이고 학명은 *Aesculus tunbinata* Blume이다. 수고가 15~20m에 달하는 교목인데 일본에서는 가슴높이 줄기직경이 4m에 이르는 것이 있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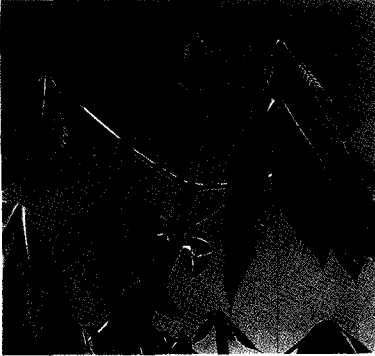
1년생가지가 굵고 피목(皮目)이 많이 발달해 있다. 엽흔(葉痕)이 심장형이고 겨울눈은 여러 개의 인편에 싸여있고 수지(樹脂)가 표면을 덮어 광택이 있고 끈적끈적하다.

새들이 날아 가다가 칠엽수 겨울눈에 잠시 앉게되면 부드러운 깃털이 뽀뽀해서 겨울눈에 그대로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칠엽수가 보여 주는 아름다움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서양산의 것을 마로니에라 하고 일본산의 것을 칠엽수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한 표현으로 생각한다. 중국에도 몇종이 자라고 있는데 그들도 칠엽수(sevenleaved tree)란 명칭을 붙이고 있다. 천사울(天師栗)이라고도 한다.

일본산의 칠엽수가 마로니에와 다른것은 잎뒷면에 적갈색의 부드러운 털이 나 있는 점이다. 마로니에의 잎뒤에는 털이 거의 없다. 그리고 칠엽수의 과피는 두껍고 표면에 돌기는 있으나 가시(刺)는 없다. 그러나 마로니에의 과피에는 돌기가 가시처럼 발달해 있다.

칠엽수속에 속하는 수종들은 서로 교잡이 잘 된다. 우리나라의 참나무속 수종의 교잡의 용이성



▲칠엽수의 새잎, 전북도임시.  
1993. 5. 6



▶마로니에의 꽃, 독일 라인강변에서  
1978. 5

(容易性)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다. 칠엽수속의 수종의 수는 많지 않은데 생겨난 교잡종은 많기로 유명하다.

발칸지방원산인 마로니에가 프랑스와 영국으로 들어간 것이 17세기의 전반이고 미국으로 들어간 것은 18세기이다. 그리고 미국의 칠엽수인 오크탄드라(A. octandra)가 영국으로 건너간 것은 서기 1764년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칠엽수를 벅카이(buckeye)라 부르는데 뜻은 “사슴의 눈” 짝으로 된다. 그 열매의 모양이 귀여운 사슴의 눈갈에 닮았다고 해서 인가.

이처럼 칠엽수가 이리저리로 퍼져서 재배를 하는 동안에 각종의 교잡종이 만들어 졌다고 믿어지고 있다.

가령 마로니에(유럽원산)와 미국산의 칠엽수 파비아(A. pavia

L.)사이에서 만들어진 교잡종 카르네아(A. carnea Hayne)는 유명하다. 1820년에 선발된 잡종이다. 그런데 파비아 칠엽수는 몸세포의 염색체수가 80에 이르고 있다. 마로니에의 염색체수는 40이다.

생물학자들의 해설로서는 카르네아 칠엽수는 생식력을 상실한 개체의 염색체배가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고정된 것이라 한다. 그것은 카르네아칠엽수의 형질은 종자로 계승되는 까닭이다.

더욱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양친의 염색체수는 모두 40인데 이것은 4배체라는 것이고 따라서 카르네아칠엽수는 8배체일 것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6배체의 교잡종도 얻어지고 있다. 그래서 칠엽수류의 수종은 염색체수로 보아 흥미있는 내용을 안고 있다.

칠엽수는 어릴때에는 음수이고 햇볕이 부족한 곳에서도 빠른 자

람을 보여 준다. 습기있는 비옥한 깊은 땅을 즐긴다. 그래서 서울시의 일반 조경수로서는 적당하지 못하고 국소적인 적지를 골라서 군식(群植)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건조와 대기 오염에 약한 편이다.

가을 바람이 불어 오면 먼지가 떨어진다. 원래 산골 깨끗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공기 오염이 심한 도시에서는 견디어 나기 어렵다.

칠엽수는 좋은 밀원식물이고 양농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나무이나 그 자원이 적은 것이 문제일 것이다. 일본 같은데에서는 밀원 식물로서 높은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종자로 묘목이 양성된다. 고층 건물 또는 공간이 넓은 곳에 어울리는 조경수이다.